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a href="http://www.emerics.org/">http://www.emerics.org/</a> 2018. 12. 27.   아프리카중동	「이슈&트렌드」 <b>미국의 新아프리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b> 작성   김예진 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	---

- 지난 12월 13일,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턴은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공식 아프리카 전략을 발표함
  -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영부인이 각각 2018년 3월과 10월에 아프리카 순방을 다녀오기는 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별다른 아프리카 전략을 제시한 바가 없어 미국의 對아프리카 전략이 고대되었음.
  - 지난 6월에서야 아프리카 담당 국무부 차관보를 임명하고 주요 협력국인 남아공의 대사직은 2년간 공석으로 두는 등 아프리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저조하였음.
- 트럼프 행정부의 아프리카 전략은 호혜 무역, 전략적 안보 협력, 그리고 선별적 원조 지원을 주요 골자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음.
  - (무역) “Prosper Africa” 계획을 통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및 사업 환경 개선을 강조하였고 다각무역에서 쌍무무역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함.
    - 미 의회는 지난 10월, BUILD(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법안을 통과시켜 개발금융 규모를 6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지분 투자를 가능토록 하여 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함.
    - 미국은 지난 7월 개최된 AGOA<sup>1)</sup>포럼에서 지역경제공동체 강화와 범아프리카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입장과 달리 향후 협상 대상국을 선정하여 호혜적인 쌍무적 통상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sup>2)</sup>
  - (안보) 미국은 아프리카 내 극단적 이슬람의 확장을 인정하면서도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투 역량 개발 지원을 강조하며 미군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것을 밝힘.
    - 미 국방부는 지난 11월 주로 서아프리카에 배치된 미 병력을 축소하여 다른 지역(대륙)에 재배치하되 소말리아, 지부티, 리비아 등 주요 거점에 있는 세력은 유지하여 최적화를 추구하겠다고 발표함.
  - (원조) 트럼프 행정부는 對아프리카 원조의 규모 대비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마셜 계획<sup>3)</sup>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sup>4)</sup>

1) 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의 약자로 법치, 인권, 시장경제 수호 등의 조건을 갖춘 아프리카에 관세 특혜를 주는 비상호적 법안임.  
 2) AGOA를 통한 미국의 對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교역량은 2017년 기준 25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간 교역의 80% 정도는 AGO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3) 마셜 계획의 주요 원칙으로는 대중의 지지, 효율성,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이 있음.  
 4) 미국의 對아프리카 원조 규모는 2014년 기준 94억 달러 수준이었음.

- 미국의 입장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거나 공정한 무역체제와 투명한 거버넌스 체제 수립에 노력하지 않는 국가는 제외하겠다고 발표함.
- 한 유엔 평화유지군의 생산성을 비난하며 지원금을 축소할 것으로 예고함.

□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對아프리카 전략은 경제적, 정치적 협력지역으로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여 우려스러움.

- 불턴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경계를 포함.
  - 불턴은 중국이 부채를 통해 아프리카를 중국에 종속시키고 부패를 장려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유엔에서 지지표를 얻기 위해 무기와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아프리카는 외부에 의존적인 성장 이 아닌 독립적이고 자기 의존적인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미군의 부분적 철수도 테러 방지 강화의 목적보다는 중국, 러시아와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의 대규모 원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
-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힘의 논리가 아프리카에서 新냉전 양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구 증가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비 시장의 확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는 성장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의 논리에 빠지기보다는 각 협력대상국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실리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음. **EMERiCs**

#### 참고자료

자료: 백악관, Brookings Institute, Reuters 등